

사카이 가문과 오바마 번의 발전

개요

강력하고 폭넓은 연결고리를 가진 사카이 가문은 오바마 번의 번주가 되는 2 번째 다이묘였습니다. 초대 사카이 가문 당주가 된 사카이 다다카쓰(酒井忠勝, 1587 년~1662 년)는 오바마 성을 완성했고, 항구도시 오바마를 한층 더 발전시키는 다양한 시책을 도입했습니다. 사카이 가문은 200 년 이상에 걸쳐 신사와 사원에 자금을 제공했으며, 와카사 칠기 등 현지 공예품을 장려하고 오바마항을 통한 유리한 해상무역을 감독했습니다.

상세 정보

사카이 다다카쓰에 의한 통치

1634 년, 사카이 다다카쓰는 오바마 번의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도쿠가와 가문의 오랜 가신으로 로주(에도 막부의 정치 전반을 관장하는 책임자)나 다이로(‘로주’보다 지위가 높고, 쇼군 바로 다음 지위) 등 도쿠가와 막부에서 요직을 역임했습니다. 그는 대부분의 시간을 막부의 본거지인 에도(현재의 도쿄)에서 보냈고, 오바마는 번을 맡긴 사람과 편지로 자주 연락을 하면서 먼 곳에서 통치했습니다.

다다카쓰는 이전 가와고에번(현재의 사이타마현)의 번주였으며, 오바마로 이주할 때 동일본에서 인기 있던 예능인이나 예능의 스타일을 가져왔습니다. 그 중 하나인 운편지시(雲浜獅子)라고 하는 사자춤은 지금도 오바마시 일부 지역에서 공연되고 있습니다.

오바마 성의 완성

사카이 가문의 통치 하에서 초대 번주였던 교고쿠 다카쓰구(京極高次, 1563 년~1609 년)가 착공한 오바마 성은 30 년 이상의 세월을 거쳐 1641 년에 완성되었습니다. 오바마는 곧 성 주변 시가지로서 번성했고, 변화가가 있는 활기찬 항구가 되었습니다. 사카이 가문은 또한 칠기와 기타 전통공예를 만드는 와카사의 장인들을 지원했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사카이 가문에 의한 통치의 최후

사카이 가문은 오바마 번을 1871 년 번정이 폐지될 때까지 통치했습니다. 오바마 번 제 14 대이자 마지막 사카이 가문 다이묘 사카이 다다아키(酒井忠義, 1813 년~1873 년)는 교토에서 도쿠가와 막부의 대표도 역임했습니다. 도쿠가와 막부의 붕괴와 1868 년 천황제의 부활을 둘러싼 격동의 정치적 사건들 사이에서

다다아키는 새롭게 즉위한 메이지 천황(1852년~1912년)의 적으로 간주되기 바로 직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바마 번 가신들의 교묘한 정치 전략으로 그는 천황에게 충성을 맹세할 수 있었고, 오바마 번은 전쟁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전시품

한 쌍의 갑옷은 마지막 오바마 다이묘였던 사카이 다다아키의 것입니다. 그 갑옷의 대부분은 에도 시대(1603년~1867년)에 만들어졌지만, 투구는 훨씬 오래전 14~16 세기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갑옷에 달린 쇠장식에는 사카이 가문의 무늬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 밖의 전시물로는 사카이 가문의 족보, 한반도 조선왕조에서 온 통상 대표가 사카이 다다카쓰(酒井忠勝)에게 보낸 편지 사본, 1660년에 무가 복장을 한 다다카쓰를 그린 초상화 복제본이 족자로 전시되어 있습니다. 와카사 칠기의 기법을 현대에 살린 4단의 옷칠상자나 귀중품을 넣기 위한 전통 옷칠상자를 재현한 것은 사카이 가문이 통치하던 시대 사카이 가문이 지원한 공예품의 예로 전시되어 있습니다.